

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1.14.), 노사정이 함께 공동 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이행 상황 점검
- 총 9,363억원 규모,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범정부 지원사업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 [붙임 3]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붙임 4] 로드맵 추진 과제 참조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된 「위라벨+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 개소를 ‘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기업 10만원 + 노동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총 107억원).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2억원)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점검단 킥오프 회의 개요
- 붙임2. 점검단 구성·운영계획
- 붙임3.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 붙임4.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 붙임5. 범정부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근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서기관	어일천 (044-202-7617)
			사무관	김영덕 (044-202-7616)
			주무관	우종규 (044-202-7549)
			주무관	김찬욱 (044-202-7972)



붙임 1**「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킥오프 회의 개요**

□ **(일시)** '26.1.14.(수) 16:30~17:30

□ **(장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B101호(서울 중구 소재)

□ **(참석)** 점검단 위원 17명 전원

□ **내용**

▲ 향후 점검단 운영 관련 논의

▲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

▲ 자유토론 등

□ **진행 일정(안)**

*** 회의 전체 비공개**

시간	내용	비고
16:30~16:35(5')	· 개회, 참석자 소개	사회
16:35~16:50(15')	· 향후 점검단 운영 관련 논의	임금근로시간 정책과장
16:50~17:05(15')	·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	임금근로시간 정책과장
17:05~17:30(25')	· 자유토론	배규식(단장)
17:30~	· 폐회	사회

* 사회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1 구성

↳ 논의의 연속성 및 노사 합의 취지의 충실한 반영 측면에서 ‘로드맵 추진단’ 구성원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추진단 → 이행점검단)

- (공동 단장) ^민배규식(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관이현옥(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부단장, 전문가)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구성) 노사(4) + 전문가(7) + 정부 부처(4) + 논의 주제에 따라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직책
1	단장(2)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2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3	부단장(1)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4	노(2)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5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6	사(2)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7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8	전문가 (6)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9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11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2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3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정부 (4)	한진선	^{직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15		주환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16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17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2 운영

- (기간) '26년 1월부터 월 1~2회(수요일) 운영 원칙*(필요시 수시 운영)

* 주요 과제 연구 설계, 대책 마련 등 노사정 집중 논의 필요 기간에는 월 2회 운영

- (내용) 로드맵 추진과제('26년 실천과제 중심)에 대한 이행점검, 주요 추진 과제 연구 및 정책·입법 제언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AI 확산 등 산업·사회 구조의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이 남아있어 실노동시간이 OECD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다.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일하는 부모와 청년세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아울러,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확인한다.

이에, 노사정은 과거 여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해 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생산성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I.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1.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한다.
2. 이를 위해,
 - 1) 노사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 2) 정부는 법·제도개선, 근로감독, 취약 분야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3)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시간 감축이 아니라 양적 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II. 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1. 노사정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함으로써 실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중과 협업, 기술 활용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 이를 위해,

- 1) 노사는 불필요한 야근·회의 등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2) 정부는 효율적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정착을 통해 노사의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Ⅲ.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1. 노사정은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이 노사 공동의 이익이며, 노동시간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한다.

2. 이를 위해,

- 1) 노사는 교대제운영과 야간노동 등 노동자의 건강 부담이 큰 영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휴식·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한 일터 조성에 협력한다.
- 2)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3) 노사정은 적정 휴식 시간 확보, 반차 등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건강·안전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Ⅳ.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든다.

1.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 규모·업종·근로 형태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2. 이를 위해,

- 1)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이 모든 노동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배려하고 협력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동화·디지털 전환,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 3)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Ⅴ. 상생과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화를 추진한다.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

2025. 12. 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강석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성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 조성
-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



☑ 노동절 휴일 지정(공무원·교원 적용)

☑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운영 개선 및 시 연구개발 분야 검토

☑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제도개선안 마련

☑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

☑ 반차 등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근거 명문화

-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실노동시간 단축 범정부 지원사업

['26년 기준]



일·생활 균형, 생산성 향상, 휴가·관광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21만 2천명, (기업)6,909개소 대상 <'26년>총 9,363억원 지원



일과 삶이 공존하는 일터 만들기

1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26년 4,624억원 / <노동자>11만 2천명, <기업>5,204개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6년 282억원/13,000명)	Q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26년 276억원/220개소)	Q 신청 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장려금 ('26년 106억원/7,000명)	Q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26년 14억원/200개소)	Q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6년 3,563억원/92,000명)	Q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6년 383억원/4,784개소)	Q 신청 방법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	고용노동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여건 마련

2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6년 4,630억원 / <기업>1,705개소

중소 제조기업의 AI 생태계 조성 ('26년, 1,592개소, 3,150억원)	Q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 관리 시스템 (https://pms.kpic.re.kr)	중소벤처기업부
AI 팩토리, 공정시스템 구축 등 ('26년 113개사, 1,480억원)	Q 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https://srome.keit.re.kr)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s://www.kpic.re.kr)	산업통상자원부



제대로 쉴수 있는 여건 조성

3 휴가·관광 지원사업 '26년 109억원 / <노동자>10만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6년 107억원/10만명)	Q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공식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 ('26년 2억원)	Q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공단